

CGNTV

M A G A Z I N E | Summer 2017_Vol.17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MC 박지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고 그 마음을 쓰다



서서평 손글씨 이벤트 당선작

CONTENTS

Summer 2017_Vol.17

여는 글 서서평 손글씨 이벤트 당선작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신미식

I. Special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서서평>, 개봉에서 특별상영회까지

- 04 <서서평> 개봉 두 달의 여정
- 06 특별상영회 나눔 프로젝트

II. Program

- 10 2017 CGNTV 정기개편 새롭게, 더 가까이
- 12 인터뷰 <유턴> 박지윤, 정범균
- 14 현장스케치 청춘들을 향한 스윗사운즈
- 16 인사이트 아웃 영상나눔프로젝트 노커스 라이크

III. Support

- 18 CGNTV 후원캠페인 다시 한 번, 하이파이브
- 20 CGNTV 후원자들 오미희, CGNTV 직원 6인, 이승규·장유순 부부, 이사라 후원자님

IV. News

- 24 방송 밖 풍경 서빙고 벽화 나눔
- 26 줄인 CGNTV 전 직원 아웃리치
- 28 선교지의 아침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승렬 선교사
- 30 국내 / 해외뉴스
- 34 요일별 편성표
- 36 후원안내
- 37 에필로그 정진호 장로(CGNTV 운영위원, 현대웰스인베스트먼트 회장) 성경적 가치관 경영과 크리스천 임팩트



COVER STORY

CGNTV 신규 <유턴>의 MC 박지윤. 그녀의 친근한 에너지가 신앙생활연구소 <유턴>과 만났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7년 6월 30일(통권 제 17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현아영, 정원아, 어대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박민수, 이준영,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바오밥 나무

처음 바오밥 나무를 만난 게 정확히 10년 전이다.
그 날의 느낌, 그 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독특한 나무 사이를 걸으며,
그 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쳤다.
아, 저렇게 아름다운 눈동자가 있구나. 이곳은 어딜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순간이 감사했다.
그렇게 바오밥 나무와 마다가스카르가 사진을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마다가스카르라는 이 매력적인 나라를 만난 건 나에게 정말 행운이었다.
지금도 그 행운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어쩌면 더 깊은 사랑으로.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외 다수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서서평>, 개봉에서 특별상영회까지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기획·제작한 CGNTV가 지난 5월말부터 선교사 서서평의 정신을 나누고 싶은 교회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극장을 찾아 준 많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제는 섬김의 마음으로, 그 감동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서서평 선교사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은퇴 선교사 및 목회자, MK, 흠사모, 장애우, 미자립교회 등을 찾아가고 있다. 각 상영회 참석자들은 뜻밖의 섬김을 받고 영화를 통해 저마다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깊은 울림과 도전 받고 있다. 가슴 속에 묻어 둔 예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마주하는 것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2017년 6월 4주 현재, 11만 5천여 명의 극장 관객, 특별상영회 3천여 명의 참석자들, 해외 상영 관객들까지, 서서평의 모든 관객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 가고 있다.

진정성의 힘, <서서평>개봉, 두 달의 여정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지난 4월 26일 개봉됐다. 제작비 100억 원 대의 영화들이 파상공세를 펼치는 극장가에 이 영화만의 시대적 당위성을 믿고 조용히 출시표를 내밀었다. 영화적 감미료를 걷어내고, 오직 서서평 선교사에 주목한 영화는 관계자들의 믿음대로 상반기 극장가에 <서서평> 만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 보이지 않는 시대적 갈등을 보여주는 듯, '섬김', '희생', '나눔'이라는 단어가 생경한 시대에,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은 여인의 왜소한 뒷모습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서서평>은 좌석 점유율 20%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개봉 첫 주간 박스오피스 4위, 다양성 영화 1위를 기록했다. 성수기로 접어들며 개봉작들이 쏟아지는 5월 달에도 박스오피스 10위권을 유지했다. <서서평>과 같은 날 개봉했던 제작비 100억 원 가량을 투입한 영화의 흥행성적을 살펴보면, <서서평>의 관객 점유율은 놀라운 선전이었다.

6월 넷째 주 현재 <서서평>은 전국 11만 5천여 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막바지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개봉한 기독교 영화 흥행 1위의 성과도 거뒀다. 역대 전체 기독교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도 <회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관객 수를 기록했다.



<서서평>은 제작 초기, 제작을 위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사진 자료 6장, 몇 권 되지 않는 관련 서적이 고작이었다. 그녀의 직계가족이나 후손은 물론 그녀가 조선에서 입양한 고아 14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실마리도 찾기 어려웠다. CGNTV는 1년 여간 독일, 미국, 전라도, 제주도 일대를 돌아서야 서서평 선교사의 실체를 그려볼 수 있었다. 그녀가 별 자료가 없는 선교사라는 점은 영화 제작의 관점에서 난관이었지만,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일생이 그러하셨듯 그녀가 누구보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했던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었다.

미국 유니온장로신학교의 역사 신학자 스탠리 교수는 "서서평 선교사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그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는 이 영화가 올 상반기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이 영화를 본 한 비기독교인 관객은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눔 프로젝트, 특별상영회

CGNTV는 이 은혜의 물결을 특별상영회로 이어갔다.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궁극의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기에, <서서평>은 ‘영화적 성과가 아닌 섬김’으로 그 가치를 남기고자 했다. 이에 따라 CGNTV는 <서서평>의 극장 수익금을 가지고 특별상영회를 진행했다. <서서평>은 애당초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로 기획됐고, CGNTV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도 “영화의 수익이 생길 경우 섬김이 필요한 곳과 아낌없이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특별상영회 첫 초청 대상은 은퇴(안식년) 선교사 및 목회자 부부, 홀사모들이었다. 지난 5월 10일 서울극장 2개관에서 그들을 초청한 첫 특별상영회를 열었다. 뒤이어 5월 MK(27일), 홀사모회(29일), 6월 직장인성경공부모임(BBB)(6일), 장애인(11일), 농어촌 미자립교회(4, 11, 18일), 등을 찾아갔고, 한국입양홍보회(17일), 소망교도소 재소자(29일), 기독교법률가회(30일)까지 순차적으로 상영 행진을 이어갔고, 7월 18일에는 국회에서의 상영도 진행된다.

서서평 선교사가 그랬듯 특별상영회의 노선은 소외된 곳, 외로운 영혼들을 향했고, 서서평 선교사의 가치를 선도할 교계 및 사회 각 리더십 계층들을 찾았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서서평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사역지였던 제주도에서도 여러 차례 상영회(6월 24, 26, 28일)를 진행했다.

은퇴(안식년) 선교사·목회자, 선교사 자녀

5월 10일 열린 은퇴(안식년) 선교사 및 목회자 부부, 홀사모들 초청 상영회에는 총 446명이 참석했다. 복음을 위해 한 세대를 수고하고 헌신했던 원로들인 만큼 CGNTV는 그들의 영화 관람을 돕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CGNTV 이사장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화 상영 전 “한국 복음화를 위해 수고해주신 목사님 내외분들을 모시고, 영화 <서서평>을 나누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영화를 통해 많은 사역자, 목회자,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상영은 서서평 역의 배우 윤안나의 무대인사 후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영화 상영 80분 동안 숙연한 모습으로 영화를 관람했다.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영화는 남다른 메시지로 기억됐다.

영화를 관람했던 이도영 원로 목사는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에 고개가 숙여지고 여생을 보다 한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안식년 중인 박민하 선교사는 “서서평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모습을 봤다”며 “저의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두 번째는 선교사 자녀인 MK 초청 상영회였다. 지난 5월 27일 여의도 IFC몰 CGV에서 진행된 상영회에는 총 35명의 MK가 참석했다. 선교사 부모를 둔 MK들에게 영화 <서서평>은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헤아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낯선 땅에서 나름의 외로움을 겪어야했던 그들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전했다.

필리핀 MK 조성호 군은 “현지인들을 사랑했던 부모님이 떠올랐다”고 했고, 중국 MK 이에빈 양은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선교지에 살아봤기 때문에 더 잘 안다”며 “서서평 선교사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슴 깊이 와닿았다”고 했다.



MK 전문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MK네스트 최용 목사는 “MK들은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희망”이라며 “뜻깊은 초청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서서평>은 오는 7월 중순 해외에서 진행되는 MK 여름 캠프에서도 상영될 계획이다.

홀사모, 농어촌 미자립교회, 제주 여성도·목회자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외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우리가 보는 서서평 선교사의 희생은 진짜 희생의 30%도 안 될 거예요.” 홀사모 모임 예수자랑사모선교회 회장인 이정정 사모의 말이다. 지난 5월 29일 천안 예자회 센터에서 진행된 홀사모 초청 특별상영회에서는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홀사모들의 진솔한 소감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상영회는 홀사모들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예자회 17주년 기념 감사예배 후 진행돼 더욱 뜻깊었다. 홀로 막막한 현실을 살아내야 했던 홀사모들에게 서서평 선교사의 삶은 또 하나의 모범이 되며 큰 위로를 전했다.

예자회 김은숙 사모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며 다시 소명을 깨우는 시간이 됐다”고 했고, 홀사모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안산실로암교회 안현자 목사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동안 힘들다는 핑계로 그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진주지역 35개 미자립교회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CGNTV는 온누리교회 농어촌 선교회와 협력해 지난 6월 4일 농어촌 미자립교회 성도들을 대거 특별상영회에 초청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세대와 교파, 교단을 초월한 진주지역 400여 명의 성도들이 진주 CGV 2개 관을 가득 채웠다. 극장을 찾은 각 성도들은 뜻밖의 나들이에 설레 보이기도 했다.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는 “진주지역 교회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 상영은 전 성도 통합 예배 후 시작됐다. 주로 소외된 자, 구석진 곳에서 사역을 펼쳤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큰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고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선사했다.

꿈이 선교사라는 학생 유신에 양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현지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고, 어린 시절 서서평 선교사의 사역지였던 제주 모슬포 교회를 다녔다는 대산교회 허운 목사는 “그곳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며 “지금 외롭고 힘든 청소년들이 있다면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대상 상영회는 6월 11일 전북 임실, 18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각각 전주와 대전 CGV에서 진행됐다. 총 220여 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나눴다.

특별상영회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거쳐 6월 말 제주 지역 상영회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서서평 선교사가 광주 양림동 못지않게 선교에 헌신했던 곳으로, 뱃길로 왕래하며 사경회와 여성 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곳이다.

이에 따라 CGNTV는 24일 제주 여전도회와 교회 여성연합회와 함께 지역 여성도들을 대상으로 상영회의 문을 열며 제주 복음화의 밑거름을 함께 되짚어봤다.

다큐영화 말미에 출연하기도 했던 제주 여전도회 최순신 권사는 “짚신을 신고 한라산 길을 오가며 애썼던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아니고선 볼 수 없는 영화였다”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또 서서평 선교사가 사역했던 1925년, 제주 읍내교회에서 처음 부인조력회가 조직됐다는 기록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제주 여성들의 신앙의 뿌리에 관해 나눴다. 제주 지역 상영회는 26일, 28일 목회자 초청 상영회로 이어지면서 제주 복음화를 향한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영혼을 향해, 글로벌 상영회



<서서평> 특별상영회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각 단체들의 상영회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입소문을 타고 국군중앙교회, 온누리교회 존파이퍼 집회, 이리신광교회, CCC선교사대회 등 다수의 단체들이 자발적인 영화 관람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열기는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주 지역은 극장 개봉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CGV 부에나파크, 달라스 시네오 아시스 극장,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에지워터 극장에서 상영된다.

독일에서는 7월, 루터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된 독일 비텐베르크 타운에서 ‘루터와 서서평’이라는 부스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CGNTV는 순차적으로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등의 자막 작업을 거쳐 영화를 전 세계 교회와도 나눌 예정이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국내외 선교지에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롭게, 더 가까이

유턴, 종교개혁 스페셜, CGN 첫 드라마

CGNTV는 2017년 정기개편을 맞아 '시청자 참여'와 '말씀 콘텐츠'를 보다 강화했다. 신규 프로그램 <유턴> 등 시청자들의 참여를 높인 프로그램들과,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알찬 콘퍼런스 및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들을 선보인다. 또 오는 12월에는 CGNTV 첫 제작 드라마 <다시 봄>(가제)도 시청자들을 만난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CGNTV에 신앙생활연구소가 신설됐다. 개편 대표 신규 프로그램 <유턴>이 그것. <유턴>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박지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개그맨 정범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외국인 프랭크 이마니 등이 패널로 출연한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1화)',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나(2화)', '교회회사,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간다.(3화)' 등 매회 시청자들의 사연을 토대로, 신앙인이라면 한번쯤 겪어봤음직한 고민들을 풀어나간다.

(방송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나침반 C> 정선희 편

올 초 선보인 <나침반C>도 시청자의 참여를 적극 도입한 새로운 시도였다. SNS(www.facebook.com/cgntvcompass) 라이브 강의에 'Communication(소통)'을 접목해, 강의 중 시청자와 출연진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침반C>는 지난 4월 첫 방송된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방송인 정선희, 청년 멘토 임은미 선교사 등 매회 다양한 분야의 만나고 싶었던 인사들이 출연해 시청자와 바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전했다. 방송인 정선희 편을 시청한 김선애 씨는 댓글을 통해 "정선희 씨의 삶에 응원을 보낸다"며 "요즘 힘들어하는 지인들과 영상을 공유했다"고 했다. 또 "좋은 방송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다큐 <This Changed Everything>

종교개혁 500주년 스페셜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 시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CGNTV는 개편에 발맞춰 선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의미들을 되짚어본다.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가 6월 첫 주 첫 강의를 시작해 총 33편에 걸쳐 방송된다. 존 파이퍼(베들레헴 침례교회), 샌디 윌슨(멤피스 제2 장로교회) 목사가 매회 힘 있는 성경 속 믿음의 역사를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전한다. (방송시간: 화요일 오후 4시 50분)

다큐멘터리 <This Changed Everything(10월 방송)>도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은혜를 더할 예정이다. 총 3부로 구성된 다큐는 '1부 마틴루터', '2부 종교개혁의 배경', '3부 존 칼빈'에 관해 소개한다.

CGNTV는 종교개혁과 독일 통일의 역사를 토대로, 통일 한국을 위한 기독교적 발판을 세워보는 자체 제작



콘퍼런스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다큐멘터리도 선보인다. 6월 말 현재, 독일 라이프치히, 비텐베르크, 베를린 등 현지 취재가 한창으로, 올 9월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12월, CGN 드라마 첫 선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로 올 한해 자체 제작 첫 영화를 개봉했던 CGNTV가 오는 12월, 첫 TV 드라마 <다시 봄>(가제)을 선보인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인공 보라를 통해 일상의 고단함과 가슴 속 묵은 아픔, 상처 등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어 가는지 몽클한 스토리로 전개될 예정이다.

주인공 보라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기억 저편에 묻어 둔 불행했던 순간들. 하지만 돌연 어머니가 행방불명되며 그녀는 또 다시 옛 기억 속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

<다시 봄>은 러닝타임 45분 단편 드라마로, 9월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해 오는 12월 말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CGNTV는 오는 10월 말,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 대한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할 예정이다.

영화 <서서평>의 못 다한 이야기와 영화가 이 시대 우리에게 남긴 의미, 국내 개봉 및 해외로까지 이어지는 상영회 물결 등이 또 한 번 시청자들에게 뜻깊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유턴>의 길잡이

박지윤, 정범균 인터뷰



우리의 신앙생활, '유턴'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진 않을까. 아나운서 박지윤, 개그맨 정범균이 그 주행에 함께 한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첫 방송된 CGNTV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진행자와 패널로 동승했다. 박지윤은 <지구촌 반상회> 이후 1년 3개월 만이고, 정범균은 기독교 방송 첫 출연이다. 연구원 가운데서 걸쳐 입은, 유쾌한 두 사람의 출연. 어떤 화학 반응으로 이어질지, 베일에 가려져있던 <유턴>의 첫 사전미팅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유턴>의 첫 모임은 지난 4월 10일 CGNTV 사옥 별관에서 진행됐다. 전 제작진들과 진행자 박지윤 아나운서, 패널 정범균 등이 처음 한데 모인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PD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유턴>의 핵심골자는 '신앙생활연구소'였다.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박지윤은 무수한 상담자들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어떤 길잡이가 될지 제작진들과 하나하나 협의했다.

기독교방송 출연이 처음인 정범균은 첫 모임 분위기가 다소 낯설었다. 하지만 오가는 대화들 속에서 프로그램 속 자신의 위치를 찾아갔다. 정범균은 목회자인 아버지의 제안으로 이번 출연을 결심했다. 그의 아버지는 "가정도 꾸렸으니 이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그의 조모가 종일 CGNTV를 틀어놓을 만큼 CGNTV의 애청자이기도 했다.

그는 "박지윤 씨와 함께 하게 돼 마음 편하다"며 "평범한 성도 입장에서, 마음에서 궁금한 그대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지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겠죠"라고 답했다.

박지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은 늘 "가진 재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CGNTV의 경우, 일정 부분 순종의 마음이 있지만,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늘 중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출연했던 CGNTV의 프로그램들도 모두 유쾌하게 풀어갈 수 있어 그녀의 강점과 잘 맞았다.

6월 6일 첫 방송된 <유턴>도 그녀의 친근한 진행과 정범균 등 패널들의 적절한 호흡으로 다소 진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보다 편안하게 풀어나갔다.

정범균에게 기독교 방송 첫 출연인데 재미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물었다. "공중파에서도 원래 별로 재미없었기 때문에..."라는 그의 유쾌한 즉답이 돌아왔다. 그의 이러한 가감 없는 일면은 방송에 공감과 재미를 더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한 1화에서는 다

소 포괄적인 주제인 만큼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박지윤, 정범균을 비롯해 연구원으로 자리한 상담 전문가, 목회자, 외국인 패널의 다양한 의견들도 오갔다. 정범균은 회식자리에서 "목회자 자녀이니 기도해보라"는 주문을 받았던 일화도 소개하고, 술 문화에 대한 솔직한 평소 생각도 털어냈다.



6월말 현재 4회가 방송된 <유턴>은 오는 7월 한 달, '크리스천은 분노를 참아야만 하나요(5회)', '내 아이 사교육 어떻게 해야할까(6회)', '기도가 정말 안돼요(7회)', '거리 전도 어떻게 볼 것인가(8회)' 등의 주제가 순차적으로 이야기될 예정이다.

첫 미팅 자리에서 별 말이 없었던 정범균은 오기 전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로 입을 뗐다. 방송을 통해 마땅히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박지윤은 "방송 후 시청자들이 다시 문제로 유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킬 수 없는 의례적인 정답이 아닌 시청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들의 바람이 <유턴>을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CGN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청춘들을 향한 스위트사운즈

한동대 공개녹화 스케치

“당신의 ‘스윗사운즈’는 무엇인가요.”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가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 캠퍼스를 찾아 500여 명의 청춘들에게 또 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매회 출연자 및 시청자들과 이 명제에 대해 나눠왔던 <스윗사운즈>는 올 6월 방송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2일 한동대 대운동장 나눔평봉필드에서 특집 공개녹화를 진행했다. 가수 홍대광, 한동대 출신 뮤지션 이대귀, 서빛나래, 한성욱이 참석해 음악과 이야기로 청춘들과 호흡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리들이 함께 한 시간이었다.



진행자 김영우(중앙)와 출연자들

흐린 하늘

한동대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2일 금요일, <스윗사운즈> 공개녹화가 계획됐던 포항에는 낮 동안 줄곧 비가 내렸다. 실외에서 진행될 녹화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었다. 더욱이 금요일이었던 터라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은 날이었다. 하지만 오후 5시, 비가 그쳤다. 공기엔 여전히 물기가 느껴졌지만,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 둘 녹화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수 홍대광



객석을 가득 채운 한동대 학생들

밀크남 홍대광

<스윗사운즈>의 간판, 진행자 김영우가 무대에 섰다. 그는 존재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스윗한 분위기를 예감케 했다. 첫 출연자로 가수 홍대광이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데뷔 5년 차 가수이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참석한 학생들처럼 평범한 대학생으로 첫 인상이 각인돼 있는 홍대광은 보다 친숙하고 공감되는 이야기와 노래들로 관객들과 함께 했다.

봄의 음악들

밀크남의 부드러운 보이스가 선선한 봄밤을 가득 채웠다. 홍대광은 <홍대에 가면>을 시작으로 <답이 없었어> <길>(with 김영우) 등 본인 특유의 발라드로 청춘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학생들은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CCM,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좌절했던 순간을 극복했던 방법 등을 묻기도 했다. 이어 봄의 향기가 물씬 담긴 그의 자작곡 <봄의 기적>과 엔딩 송 <잘 됐으면 좋겠다> 무대가 흥겨운 분위기 가운데 이어졌다.

선배들의 무대

설레는 봄밤의 콘서트가 끝나고 2부에서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무대가 진행됐다. 찬양사역자이자 폭넓은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대귀, 서빛나래, 한성욱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한동대 출신 선배들이기도 하다. 첫 곡은 이대귀의 <고백, 또 하나의

시 23편>. 이 곡은 녹록치 않은 현실의 중심에서 가수가 목상한 시편 23편을 담고 있다. 담담히 인생을 말하고 결국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를 고백하는 노래. 위로이자 복음인 곡이었다.

모두의 스위트사운즈

이대귀는 한동대 96학번, 서빛나래와 한성욱은 각각 00, 03학번 선배들이다. 그들은 관객들과 추억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20대, 그때 그 시절을 추억했다. 대학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던 기억, 자아실현에 집중했던 한 때, 대학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사연 등이 공개됐다. 이날 서빛나래는 <내 이름 아시죠>를, 한성욱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를 불렀고, 엔딩 송은 세 가수가 함께 부른 <푸르른 광야>였다. 음악과 이야기로 깊어져가는 밤, 학생들은 그들과 함께 찬양들을 흥얼거렸다. 무대 안팎 더없는 스위트사운즈가 흘러넘쳤다.



한동대 출신 뮤지션 한성욱, 서빛나래, 이대귀

KNOCK 영상나눔프로젝트

노커스 라이크

CGNTV 모바일 콘텐츠 <KNOCK>에서 올 상반기 '노커스(Knockers)'들이 '라이크(like)' 할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홍보 영상 제작이 절실한 교회나 단체들을 위해 <KNOCK>가 직접 영상을 제작해주는, 영상나눔프로젝트 <노커스 라이크>다. 영상 제작은 물론 제작 노하우 전수에도 역점을 둔 <노커스 라이크>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총 3편으로 구성해 지난 6월 10일, 17일, 24일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했다. 1편은 제작 준비를 다룬 '서막', 2편은 완성된 제작물인 '본편', 3편은 영상 제작을 위한 '노하우'이다.

Inside 제작진에게 듣는다!

'노커스 라이크'는 어떤 의미인가.
- 영상나눔프로젝트로, 노크를 시청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 또는 그런 시도를 뜻한다.

기획하게 된 계기는.
- 사역에 영상을 활용하고 싶지만, 역량이 부족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주변에 많다. 그분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드리고 돕고 싶어 기획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보다 쉽고 실용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목회자들이 직접 출연한 뉴비전캠프 홍보 영상 촬영 현장

첫 선정 단체 '뉴비전코리아'는 어떤 곳인지.
- 차세대 복음화를 비전으로 하는, 4개 미자립교회 빛나리교회(정진석 목사), 임마누엘축복교회(이건동 목사), 대은교회(구재석 목사), 스토리교회(박영산 목사)의 연합단체다. 2011년부터 매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무료로 '뉴비전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매해 전국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번 <노커스 라이크>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
- 총 3편으로 구성했는데, 1편은 '영상나눔프로젝트의 서막'이란 타이틀로, 제작과정을 유쾌하게 담은 일종의 예고편 형태다. 2편은 본편인 '뉴비전캠프 홍보 영상'으로 함께 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심분 반영해 재밌는 패러디와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았다. 3편은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영상제작 '노하우'를 모았다. 영상에 관심이 많은 노커스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꿀팁을 살짝 소개해준다면.
- 이번 촬영은 방송 전문 장비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촬영 장비가 여의치 않은 곳에서도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카메라 구도, 워킹, 슬로우모션, 조명, 반사판 활용 등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들을 소개했다.

제작 과정은 어땠나.
- 총 4회 촬영이 진행됐는데, 네 교회 목사님들이 매번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했다. 또 네 교회 연합으로 영상에 관심 있는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했는데, 제작 과정 자체를 무척 즐거워했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에게서 그동안 영상 제작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었다. 제작진들도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고, 전문 장비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촬영하면서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됐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보는 뉴비전코리아 학생들

Out 공감 댓글

<노커스 라이크> 시리즈 마지막 3편, '교회 영상 만들기 노하우'가 공개된 이후, 영상 제작에 대한 노커스들의 자신감이 한층 높아졌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시작하자!"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2편을 통해 실제 제작 영상을 보고, 3편을 통해 노하우도 익히고, <노커스 라이크> 댓글 란에는 지인들에게 알리기 바쁜 노커스들의 태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석종민(이요셉) 내가 영상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찍어 줄게
- 조수정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감사해요
- Angie J Kim 유익하고 재미있고 짧으며 간단하고 고급지네요! 다 있군요!
- Byungjin Lee(한재진 김진봉) 우리도 시작하자
- 손은총(김예찬) 너가 말한 동영상 이렇게 만들까
- 정예인 능히 못할 것이 없다
- 차수빈(오주용) 집회준비다 이거
- 구제석 최고! 더운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KNOCK 감사 ^^ 파이팅!
- 신소명(이남경) 우리도 할 수 있다!!
- 김수란 오호 고퀄 영상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이것보고 자신감 업업!
- 조광식 아이디어 좋아요! 노크팀 파이팅입니다~

※ <노커스 라이크> 1,2,3편은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하이파이브

새로운 시작 & 함께 한 얼굴들

CGNTV를 위한 '하이파이브'가 시작됐다. 손에서 손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하이파이브'는 '함께' 하는데 가치를 둔 CGNTV의 후원 캠페인이다. 정기후원으로 10년을 지나온 CGNTV가 다가 올 10년을 바라보며 내놓은 밑그림이다.

정기 후원자 수 5만 명. 이는 지난 10년 누적 정기 후원자 수 2만 8000여 명의 배가 정도의 수치다. 어쩌면 또 다시 10년은 기다려야 가능한 목표지만, CGNTV는 정기 후원 10년인 현재 생각의 패러다임을 달리했다. '각자'가 아닌 '함께'로. 후원자 5만 명은 기존의 후원자들이 후원자 한 명씩만 더 독려하면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꿈인 것이다.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CGNTV에게 정기 후원자 5만 명은 큰 의미다. 어느 정도의 고정적 동력을 확보해 급변하는 미디어 제작 환경에 대처하며 선교지, 선교사, 다음세대, 교회 그리고 소외된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 이에 몇몇 후원자들이 이미 뜻을 같이 하며 다채로운 '하이파이브'

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후원 배가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CGNTV 내부였다. CGNTV는 지난 4월 "우리가 먼저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내 캠페인을 시작했다. CGNTV에는 이미 직원 후원자들이 많았다. 캠페인이 시작된 3월에는 직원 156명 중 127명이 후원자였다. 이후 4월말에 그 수가 147명으로 확대됐다. 직원들의 가족 후원자도 46명에서 77명이 됐다. 직원의 96%가 몸소 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 후원은 CGNTV 초창기인 2006년 12명의 직원들로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직원 후원의 마중물이 됐고, 다음해 10월 처음 시작된 온누리교회 정기후원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들 중 6명은 현재까지 CGNTV에 재직 중이다. 그들은 4월 사내 캠페인 현수막에 등장해 다시 한 번 5만 후원자 운동에 마중물이 됐다.

CGNTV는 매달 새롭게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이 교체되는 매달 첫 주 금요일에는 직



'각자'가 아닌 '함께'로
우리가 먼저 합니다.

원들에게 이색적인 기념품도 전하며 캠페인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후원팀은 직원들을 위해 직접 파니니를 굽기도 하고, 과자와 음료의 패키지를 살짝 바꿔 재기발랄하게 캠페인을 알리기도 한다. 과자 '오레오'는 '올해 오만'으로, 음료 '비타500'은 '비타50000'으로 변신했다.

CGNTV 운영위원들은 '1대 10', 중보기도팀은 '1대 5'를 공표하기도 했다. 이는 미디어선교의 미래를 생각한 그들의 열정 수치였다. 그들은 선교지, 병상, 미자립교회 등 한 영혼 한 영혼들이 CGNTV에 보내 온 진솔한 고백들을 누구보다 몸소 체험해왔다. 운영위원 중엔 이미 103명을 이끈 위원도 있고, 10명 이상을 이끈 위원들도 여러 명이다. 운영위원 내 여성운영위원들은 올해부터 별도의 모임도 구성해 주변에 CGNTV 사역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국내 교회들도 CGNTV 후원 주간을 마련해 미디어선교 사역에 힘을 싣고 있다. 은혜샘물교회(박은

조 목사)와 동안교회(김형준 목사)는 지난 2년 간 연 1회 CGNTV 후원 주간을 가졌다. 사역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는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지지하며 후원을 약속했다. 은혜샘물교회는 첫 해 100여 명이, 이듬해 120여 명이 더 후원에 동참했다. 동안교회는 첫 해에 230여 명이 지난해에 145명이 추가로 후원을 약속했다.

CGNTV 정기후원은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CGNTV 선교 사역의 큰 버팀목이다. 선교지를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 더욱 그렇다. 첫 해 5000여 명에서 시작된 마음이 지난 해 2만 8000여 명이 됐다. 그중에는 10년을 변함없이 CGNTV와 함께 한 이들도 많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이파이브'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기적 같은 지난 10년, 저마다의 진심을 보탠 수많은 후원자들의 마음에 그 답이 있을 듯 싶다.



오지의 MK를 만났던 날

오미희 후원자님

방송인 오미희 권사는 CGNTV 10년 정기후원자다. 아니 '10년 지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10년 후원자란 말에 “아, 그래요?”라고 하는 그녀의 대답이 마치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녀는 CGNTV 초창기, 프로그램 대표 진행자였다. 또 사역 관련 각종 행사들의 진행도 자주 맡아, 말 그대로 힘들 때 고락을 같이 한 CGNTV의 동역자였다. 더불어 그녀는 CGNTV 후원자이기도 했다. 10년 전이면 그녀가 한창 투병과 개인적 송사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어떤 계기로 후원을 결심하게 됐을까. 친구와의 추억담이 그렇듯 그녀는 10년 전 기억을 금세 소환해냈다.

그녀가 후원을 결심하게 됐던 것은 한 MK(선교사 자녀)를 담은 CGNTV의 영상을 본 뒤였다. CGNTV 초창기 후원의 밤 행사 자리에서였다. 1부 목회자 네트워크 행사 진행자로 참석했던 그녀는 2부 후원행사 자리에서 그 영상을 봤다. 영상을 보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인 후원 약정 바꾸니, 동석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편할 수 없었다. 당시 그녀는 후원을 할 만한 심적, 물질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 MK가 연신 "I love CGNTV!"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조금 전 불편함이 이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MK였던 아이들은 부모들을 따라간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사역에 바쁜 부모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것 같아



힘겨운 상태였다. 그런 아이들에게 고국어로 나오는 CGNTV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됐던 것이다.

오미희 권사는 그날 위성 하나의 힘을 깊이 체감하며 당시 출연중인 프로그램의 일 년치 출연료를 전액 후원금으로 약정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과부의 두 랍돈이 그랬듯 그녀는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더 없이 가벼웠다는 그녀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움직임이셨고 제게 그걸 받으시겠다는 그분의 뜻이셨죠”라고 당시를 추억했다. 이후 약정 금액의 10배 이상을 오랜만에 출연한 드라마 출연료로 받은 기억도 그녀에겐 CGNTV 하면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간증이다. 드라마 장르도 그녀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극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CGNTV 제작 영상들을 칭찬한다. “CGNTV는 영상을 참 잘 만들어요. 늘 설득력이 있죠. 영상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녀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려는 마음은 교회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처음 마음 지금까지

김경숙, 모정임, 박정화, 이상욱, 이주연, 황인화 후원자님

CGNTV 156명의 직원 중에는 6명의 터줏대감들이 있다. 개국 시기였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CGNTV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경영국 재정팀 황인화 부팀장, 교육제작국 선교교육1팀 김경숙 PD, 웹미디어국 S/W개발팀 모정임 사원, 편성국 이주연 국장, 후원기획실 박정화 실장, 융합기술국 이상욱 국장이다(사진 왼쪽부터).

지난 4월 그 여섯 명을 함께 담은 홍보물이 CGNTV 사내 곳곳에 부착됐다. CGNTV 후원을 위한 사내 캠페인 홍보물이었다. 터줏대감 6인방은 공교롭게도 개국 초기부터 후원도 같이 해 온 직원들이었다. 그들을 앞세운 캠페인은 지난 4월 한 달, CGNTV 사내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직원 후원자 수도 한 달 새 상당수 늘었다.(18p 참조) 10년을 이어 온 그들의 신실함이 현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

6인은 2006년 CGNTV 개국 초기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했다. CGNTV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심정으로 임했고, 직원들도 그 비전에 열정을 다했다. 후원은 그 뜻을 위한 그들의 진심이자 기도였다.

이상욱 국장은 “후원자가 되는 것은 CGNTV에 대한 일말의 빛진 마음을 갚는 일이었다”며 “CGNTV를 통해 많은 순간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이주연 국장은 “입사 초기부터 이 사역에 열정이 있었다”며 “매년 여름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오면 그 마음이 더했다”고 했다.

박정화 실장은 “입사 전 하와이 코나에서 6개월간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매 주말 CGNTV로 모국어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 지금도 감사와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모정임 사원은 CGNTV의 콘텐츠와 공동체가 좋고, 김경숙 PD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다. 황인화 부팀장은 사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초심의 바로미터가 돼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10년 넘게 일해 온 CGNTV에 대해 물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송” “감사만 남는 곳, 이 시대 마지막 도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해주는 곳.” “복음을 진실로 전하는 방송, 선교사님들의 생명수”, “영적 공동체”, “성장시켜주는 곳.” 여섯 사람의 대답이 군더더기 없이 똑 떨어진다. CGNTV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곳이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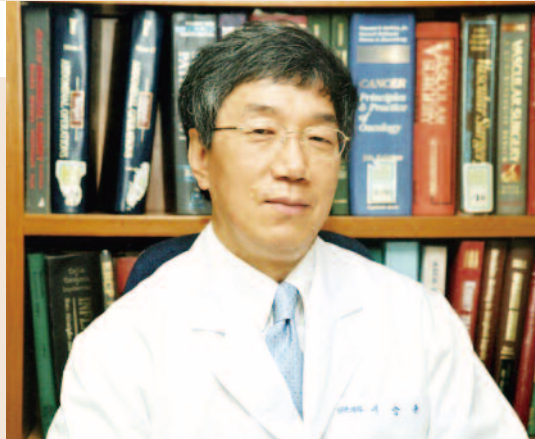
이승규, 장유순 후원자님

이승규 후원자는 세계 최고의 간이식 권위자로 유명하다. 수십 년 간 무수한 생명들이 그의 손끝에서 새 삶을 찾았고, 국내외 많은 의료진들이 그의 의술을 연구하고 따랐다. 지금은 현역 외과에서 은퇴했지만, 산하에 전국 8개 아산병원을 둔 아산의료원의 원장으로 여전히 국내 의료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술을 직접 맡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를 소위 '명의'로 부른다. 이는 지난 그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겠지만, 그가 명의가 된 데는 또 다른 인도자이자 스승이 있었다. 진정한 명의인 예수님이다. 예배와 말씀은 늘 그에게 호흡과 같았다. 사모하는 목회자의 말씀은 찾아다니며 듣기도 했다. CGNTV에 후원을 시작한 계기도 초창기 CGNTV 이사장인 하용조 목사의 비전 때문이었다.

그의 삶 대부분이 의사로서 걸어온 외길 인생이었지만, 교회와 말씀은 그의 삶의 자양분이자 반석이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내는 늘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무수한 환자들을 살리는데 애썼고, 그의 배우자 장유순 권사는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수고했다.

그들은 다년 간 교회에서 진행하는 구호 사역에 힘쓰고 있고, CGNTV가 설립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 이 말씀을 계기로 두 사람은 그 말씀에 순



종하고 있다. 장유순 권사는 “하나님의 일은 저의 계산이 아닌 그렇게 순전하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고 했다.

장유순 권사는 지금도 CGNTV의 첫 후원의 밤 행사를 잊지 못한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역이 생각지도 못한 후원금을 토대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장 권사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장 권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CGNTV 후원행사에 참석했다. 후원의 밤에 참석해 때론 CGNTV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CGNTV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는 환우의 간증도 들었다. 그 관심이 지금까지 꾸준한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후원. 하나님께서 후일 어떤 모양으로 그 떡을 찾으실지, 그 순종의 열매가 궁금하다.

새벽을 바꾼 은혜

이사라 후원자님

지난 해 가을, 편지를 동봉한 후원금 봉투가 CGNTV에 도착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전달된 봉투였다. 당일 꼭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후원자는 짧은 편지를 담아 온누리교회로 후원금을 냈다. 편지에서는 CGNTV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물씬 묻어났다.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소득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CGNTV는 제가 잠 못 이룰 때마다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된,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감사한 마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라 후원자는 4년 전 새벽, 우연히 CGNTV 앱을 설치했다. 수면 장애로 그녀가 한창 새벽마다 시름에 잠겨 있을 때였다. 무심코 터치한 앱에서 정적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나왔다. 당신의 딸을 도닥이려는 하나님의 임재였을까. 이사라 후원자는 그날 평평 눈물을 흘렸다. 병원 치료까지 고민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녀는 그 뒤로 더 이상 새벽이 두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든든한 위로처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새벽에 하는 영어 예배는 가끔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지금 그녀는 CGNTV와 더없이 친밀한 상태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받은 은혜와 함께 CGNTV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됐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외국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의 삶을 떠올려보게 됐다. CGNTV 초창기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이 사역의 비전에 큰 감흥이 없었던 그녀지만, 몸소 은혜를 체험하니 이 사역이 더욱 귀했다.

그녀는 살면서 크게 경험한 그녀만의 은혜들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렷돈을 진정 어여삐 보신다는 점이다. 그녀는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신 경험들이 많았다. 이런 은혜는 그녀가 CGNTV의 후원을 놓고 하나님께 ‘일 평생’이란 약속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그녀는 현재 아동학 교수로 대학 강단에 서며, 대학원에서 선교 관련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교지를 향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CGNTV와 늘 함께 한다. 그녀는 “제가 직접 선교지를 나가거나 누군가를 섬길 재능은 없지만, 후원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같다”고 했다. 새벽에 그녀가 받았던 은혜의 이유는 비단 치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 싶다.



무채색 벽, 하늘빛 거리로

CGNTV·아트비전, 서빙고 벽화 나눔

“이 담장이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서빙고역. 역으로 향하는 철길 옆 담장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무채색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던 시멘트 담벼락이 높이 187cm, 길이 56m 하늘빛 대형 그림으로 변신한 것이다. 실제 하늘과 초록 가로수들도 다같은 그림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가까이서 보면 하트들이 누군가의 마음으로 날아가려는 듯 ‘섬김, 사랑, 감사, 기쁨, 함께, 꿈’ 등의 글씨와 함께 곳곳에 그려졌다. 한쪽에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서빙고동 마을지도도 있다.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이는 청량한 분위기로, 거리가 탈바꿈 됐다.

이번 서빙고 벽화 나눔은 지역을 섬기기 위해 CGNTV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온 일이다. CGNTV의 핵심사업인 ‘나눔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생각이었다. CGNTV는 이곳이 사옥을 마주하고 있는 거리인 만큼 벽화를 통해 복음의 빛,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우고 싶었다.

작업은 CGNTV 주최,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회 아트비전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8일 미장 작업을 시작해 6월 7일 모든 작업을 마치고, 8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CGNTV는 벽화 디자인 및 기초 작업을, 아트비전은 20여 명의 멤버들을 통해 스케치 및 채색 등의 전문적 작업을 도맡아 했다. 또 노루페인트가 페인트 및 작업도구 일체를 제공해 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벽화가 완성됐다.

아트비전 황혜성 팀장은 “길이 정말 밝고 환해졌다”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더불어 “벽화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멤버들과 ‘각자’가 아닌 ‘같이’를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며, “벽화에 새겨진 ‘섬김, 사랑, 감사, 기쁨, 함께, 꿈’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같았다”고 했다.



완성된 벽화



1

작업에 참여했던 CGNTV 직원은 “도안이 실제로 그려지니까 더 멋졌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우중충했던 곳이 예뻐져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또 “이젠 일부러 벽화 쪽으로 걸어 다니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작은 수고를 더해 주변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벽이 원래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CGNTV는 작업을 하며 몇몇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소 미심쩍어 하며 “회색이었나?”라고 답했다. 그 벽에 그래피티가 그려졌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젠 분명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며, 혹은 버스에서 내려 이 동네의 지도를 살펴볼 테고, 열차시간에 쫓겨 바쁘게 이 길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씩은 이 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7

- 1. 미장작업
- 2. 벽화작업 출정식
- 3. 배경색 작업
- 4. 벽화 스케치
- 5. 채색 작업
- 6. 서빙고동 지도
- 7. 벽화 현판식



4



5



6

서빙고동 양동호 동장은 “이 지역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따라 서빙고역까지 걷는데 밝은 기분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CGNTV와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회 아트비전의 값없는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이번 작업을 함께 했던 서빙고역 구자욱 역장도 “지역을 섬기기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 CGNTV 전 직원 아웃리치

“CGNTV의 아웃리치는 사랑입니다.” 지난 5월, 전 직원 아웃리치를 앞두고, 지난해의 경험을 나누는 CGNTV 한 직원의 간증이다. 지난 사역을 분석하며 진솔한 경험들을 나누고 사역 준비에 한창인 CGNTV는 오는 7월 또 다시 전 직원 아웃리치를 시작한다. 사역의 핵심 모토는 ‘한국교회와의 나눔’이다. 두 번째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고, 고향교회를 위한 섬김에도 팔을 걷어 부친다. CGNTV 아웃리치의 꽃인 해외 선교지 사역도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변함없이 진행된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CGNTV의 파종시기. 참석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미디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CGNTV 아웃리치 올해의 밑그림을 살펴본다.

미디어 아카데미 두 번째... 청주, 광주 이어 부산, 대구로

CGNTV의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이 지난해 청주와 광주에 이어 올해 부산과 대구로 이어진다. 지역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돕기 위한 CGNTV의 행보가 한 발 더 확대된 것이다. 1차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2차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각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미디어 아카데미는 미디어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교회의 필요에 주목한 CGNTV가 지난해 처음 시작한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다. 미디어 선교 사역의 가치를 알리고 크리스천 미디어 사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전한 자리였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미디어 아카데미는 이러한 사역의 기본 취지를 토대로, 기존의 커리큘럼에 실용적인 부분을 보강했고, 활용 툴도 참석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들로 마련했다. 또 실습시간을 확대해 참석자들이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지난해와 달리 선택강의가 신설됐고,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등 2017년 CGNTV 대표 미디어 콘텐츠들도 강의에 심분 활용한다.

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

2017 CGNTV MEDIA ACADEMY

일시 When : 2017. 7. 4(화) ~ 7. 6(목)

장소 Where : 부산 수영로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대상 Who : 1. 사진 / 영상 /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교역자 및 성도
2. 섬교원상을 온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역자
3. 신청은 50명

집수 및 문의 Responder and Contact : 문의 02-3275-8313 (CGNTV 인사교육팀) 메일주소 cgntv@naver.com

비용 Entry fee : 무료! (중식제공)

본트래킹 활동에 참여(CSLR 또는 캠프)는 신청합니다. 인가는 신청으로 신청하며 타는 후 신청자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CGNTV

참가자 중심의... 실제적 실용적 강의

주요 강의 주제는 ▶ 미디어 사역, 선교의 목적 ▶ 유튜브 & 페이스북 쉽게 따라잡기 ▶ 우리교회 드라마 만들기 ▶ 영상, 어디에 쓰실 건가요?(영상기획실습) ▶ 교회 영상 쉽게 편집하기(영상편집실습) ▶ 우리 목사님 스피치가 달라졌어요 ▶ 천천히 평온하게 줌인(영상촬영실습) ▶ 속성으로 배우는 사진

선택 강의 ▶ 방송 시스템 : 영상과 음향 ▶ 교회 디자인 ▶ 교회 스토리지 활용 ▶ 저작권 대처하기 등이 준비됐다. 강사는 영성과 경험, 기술력을 고루 갖춘 CGNTV 부서별 대표 담당자들이 맡을 예정이다.

고향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CGNTV 고향교회 섬김은 오는 8월 2일 시작된다. 고향교회 섬김은 사역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일손을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마음을 나누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전북 장수의 고향교회를 다녀온 제작보도국 나가무네 카이 직원은 “고향교회 섬김은 영혼의 섬이 있는 자리”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올해는 총 50여 명의 직원들이 전라북도 진안 배넬실교회로 향한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깎듯, 고추 등의 농작물 수확과 마을회관 보수 사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충남 청양, 전북 장수 아웃리치 팀도 교회 수리를 돕고, 지역 어르신들의 일손을 돕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마지막 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두 초청한 마을 잔치를 열고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특별한 섬김을 받은 장수의 한 주민은 함께 한 CGNTV 직원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선교지를 보고 느끼고... 해외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는 CGNTV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선교지를 몸소 경험하는 사역들이 진행된다. 올해는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순으로 팀들이 떠난다.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대만 아웃리치는 총 7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처음으로 현지 미디어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타이베이 순복음교회(11, 12일)와 까오슝 감리교회(14, 15일)에서 관심 있는 대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각 이틀간 진행된다. 영상기획과 촬영, 프리미어 기초(영상 편집), 포토샵 기초, 교회 음향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팀과 태국 팀은 각각 8월 20일, 8월 22일 출발한다. 팀당 7~8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일주일간 안테나 설치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28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 일본 아웃리치 팀은 지난해에 이어 지진 피해지역인 일본 구마모토 복구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팀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현지 복구 사역과 함께 현지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데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순수복음방송의 힘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승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승렬 선교사는 지난해부터 늘 곁에 두는 필수품이 있다. 말씀 연구에 도움을 얻고 고국이 그리울 땐 언제든지 고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은혜의 설교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곳. 백승렬 선교사는 지난해 선교사역 7년 만에 처음 CGNTV를 설치 받고 사역지의 일상에 새 활력을 얻고 있다. 한 번도 꿈을 가져 보지 못한 아이들을 품은 그가 CGNTV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른 중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사회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다. 도로도 잘 정비돼 있고, 수도나 전기 설치도 용이하다. 자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언론의 자유도 있고, 인권을 위한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잘 정비된 사회기반시설들은 마치 극소수 사람들의 전유물인 듯 남아공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보인다. 실제로 잘 정비된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백화점과 상점들이, 맞은편에는 판자 집들이 늘어서있다.

백승렬 선교사가 사역중인 곳도 정부가 자국민 보호와 인권을 위해 무료로 집을 지어준 칼리쳐 타운십이다. 타운십은 흑인거주지역으로, 빈민층을 위해 마련된 임시주거지구다. 하지만 근본적인 생활교육이 부족한 주거민들은 이러한 지원제도도 마련돼도 활용하지 못하고 빈곤한 생활을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약간의 학자금 제도도 모르고는 마찬가지다. 타운십 대



부분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졌던 경험도, 그 꿈을 펼칠 방법을 도전 받아 본 적도 없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불안에서 야기되는 치안문제, 교육과 바른 신앙의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지도해야 할 남아공 현지 교회들의 신학적 역량이 턱없이 빈약하다. 백 선교사에 따르면, 신학 훈련은 고사하고 성경 연구 혹은 성경 일독을 한 목회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백 선교사는 “현재 남아공 선교에 가장 시급한 일은 다양한 교육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신학교육을 통해 현지교회에 성경적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실정은 현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에게 더 큰 사명감으로 다가온다. 차세대들을 깨우고 말씀을 토대로 신학교육을 다져 가는 일. 이는 그의 주요 사역이기도 하다. 그는 2014년 남아공으로 오기 전, 2009년 남아공 인접 국가인 보츠와나로 파송돼 4년 간 사막지역의 교회 개척에 헌신했다. 이후 굳호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 현지 선임 선교사와 함께 지역개발 및 어린이 교육 사업에 힘썼다.

이렇듯 차세대와 교회 개척에 힘써 온 그는 늘 곁에



1. 백승렬 선교사 가족
2. 현지 교회 예배 현장
3. 음플레니 지역 어린이 급식 사역
4.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백승렬 선교사
5. 주일예배 청소년 소그룹 모임

있는 CGNTV를 보며 이를 교육 사역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는 CGNTV를 통해 정기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종종 방송 통신 대학이 떠오른다. 수많은 양질의 말씀들이 더 없는 교재로 다가온다. 때론 내용들이 성경 권별,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면, 콘텐츠 재사용이 용이해져 선교사들의 세미나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또 CGNTV 콘텐츠를 선교사들을 통해 현지어로 번역해 신학교육이 부족한 현지 목회자들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CGNTV에 전했다.

사람 간의 만남도 그렇듯, 그가 CGNTV를 아끼는 가장 큰 이유는 ‘순수성’ 때문이다. 그는 CGNTV의 가장 큰 가치에 대해 “순수복음방송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사역을 하는 동안 “말씀을 잘 받아,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현지인들을 볼 때 가장 힘을 얻는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더 없이 감사드린다.

그는 이 사역의 길에 좋은 조력자인 CGNTV가 끝까지 순수복음방송으로 곁에 있어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고품질의 방송이 아닌 복음의 고품격을 지키는 방송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국내뉴스

CGNTV 운영위원회

2017년 CGNTV 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금요일 오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렸다. 정상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45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CGNTV 이용경 대표의 상반기 업무 보고,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진행 상황 공유, 운영위 활동 보고 등이 이어졌고, 5만 후원자 운동에 대한 비전도 나왔다. 또 신임운영위원으로 온맘인터내셔널 대표 이사 정상기 온누리교회 안수집사가 위촉됐다. 모임에 참석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가 우리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일본 러브소나타 실행위원회 방문

동경, 후쿠오카 러브소나타 실행위원들이 각각 지난 5월 31일, 6월 9일 CGNTV 본사를 방문했다. 집회 참석 차 내한했던 각 위원들은 러브소나타 10주년을 맞아 일본 복음화를 위한 CGNTV의 헌신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CGNTV는 본사를 소개하고 향후 일본 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그들과 교제를 나눴다. 호소이 마고토 동경 실행위원장은 “10년 동안 변함없이 동역해 준 CGNTV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10주년을 맞은 제26회 러브소나타는 오는 7월 25, 26일 동경에서 개최된다.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ICVM 최고해외영화상 수상

CGNTV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2015)가 지난 6월 29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퍼런스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 Association)2017'에서 금상에 해당하는 '최고해외영화상(Gold Crown Award)'과 저예산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Silver Crown Award)을 동시에 수상했다. 내한 선교사들의 값진 헌신을 그린 <블랙마운틴>은 미국 블랙마운틴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생생한 사역 이야기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바 있다. ICVM은 1973년 설립된 국제 기독교 미디어 단체로 매해 우수한 기독교 영상들을 시상하고 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반기 새 모습

어린이 종합 프로그램 <나는야 주의 어린이>가 하반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간다. 지난 4년 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 허민이 MC에서 하차하고, 걸그룹 리브하이의 레아가 새롭게 진행자로 나섰다. 신임 MC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린이들의 친구 같은 진행자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밖에 <나주어>는 코너 개편을 통해 어린이 사역자 휘타의 진행으로 성경구절을 랩으로 외워보는 '휘타와 찬트GO', 성경인물을 1인 종이인형극으로 보여주는 '바이블 피플 Who? Who?'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1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CGNTV를 보다, 은혜를 나누다'를 주제로 'CGNTV 시청수기 공모전'이 진행된다. CGNTV는 지난 12년 동안 CGNTV와 함께 해온 시청자들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응모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CGNTV를 통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과 모바일 콘텐츠 <KNOCK>, 웹드라마 등에 대한 소감을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편성기획팀 02-3275-9446



제3회 노커스(KNOCKERS) 영상 공모전

CGNTV 모바일 콘텐츠 <KNOCK>가 '제3회 노커스(KNOCKERS)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영상공모전은 노커스(KNOCKERS), 즉 '<KNOCK>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독교 영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부분은 4분 내외의 여름 아웃리치(단기선교) 보고영상, SNS용 기독교 영상, 기독교 단편 드라마 등이며, 응모 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KNOCK> 페이스북(www.facebook.com/cgntv.knoc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노크팀 02-3275-9526, 9437



해외뉴스

미주 CGNTV _ 영화 <서서평> 미주 개봉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미주 지역에 개봉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남가주 CGV부에나파크, 달라스 시네오 아시스 극장,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예지위터 극장에서 본격적인 상영이 시작됐다. 개봉 첫 날, 남가주와 달라스 관객들은 “한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 준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정말 감격스럽다”며 고국을 떠올리는 감회를 전했다.

<서서평>은 극장 개봉과 함께 지난 6월 24일 LA CGV 2개 관에서 미주 지역 교회들을 초청한 특별상영회도 진행했다. LA 한인침례교회와 새생명교회 교인들 450여 명이 참석해 영화의 은혜를 나눴다. 각 참석자들은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영화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CGNTV _ 러브소나타 10주년 특별 좌담회

일본 CGNTV는 지난 6월 10일, 17일 일본 러브소나타 1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를 방송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러브소나타 역대 실행위원장 10여 명이 출연해 러브소나타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봤다. 1부 ‘러브소나타 10년의 발자취’ 편에서는 러브소나타의 은혜와 간증을 나눴고, 2부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 편에서는 일본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펼쳤다. 일본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2007년 오키나와에서 처음 시작됐고, 오는 7월 25일, 26일 제26회 러브소나타가 동경 국제포럼에서 개최된다.



인도네시아 CGNTV _ 제3기 방송아카데미

인도네시아 CGNTV가 제3기 방송아카데미를 열었다. ‘영상편집 기초와 활용’을 주제로 지난 5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5주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진행됐다. 강의별 주제는 ‘영상편집을 위한 포토샵 배우기’, ‘프리미어를 이용한 영상 편집’, ‘스마트 폰 촬영 후 편집하기’, ‘우리교회 영상 만들기 실습’, ‘작품 발표회 및 시상’이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인도네시아 성도 30여 명이 참석해 알찬 배움의 시간들을 보냈다. 한편 아카데미 1, 2기 수료생들은 자카르타 주님의교회에 미디어팀을 조직해 복음을 위한 귀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올 하반기 현지 인을 대상으로 한 제1기 방송아카데미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랍 CGNTV _ 중동, 유럽, 아프리카 운영위원회 설립

중동, 유럽, 아프리카 운영위원회가 설립됐다. 각 대륙이 연합한 CGNTV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발족은 이번이 처음. 운영위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향후 CGNTV를 통한 복음 전파에 다방면으로 동역하게 된다. 발족식은 지난 3월 28, 29일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에서 온 운영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진행됐다. CGNTV 이사장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발족식에서 “CGNTV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다”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국 CGNTV _ 모바일 신규 <The 12>, <60초>

태국 CGNTV가 모바일 전용 프로그램 <The 12>와 <60초>를 제작한다. <The 12>는 12명의 제자들을 뜻하는 말로 우리 사회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12명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러닝타임 3분 내외로 청소년들에게 참된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 <60초>는 크리스천 가수, 연기자,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게 일, 사랑, 신앙 등에 관해 60초 내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게릴라 형식으로 찾아갈 예정. 제작 중인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중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만 CGNTV _ 개편 신규 <청춘 반짝반짝> 외

대만 CGNTV는 6월 수시개편을 맞아 중화권 선교를 돕기 위한 두 편의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다. 중화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춘 반짝반짝>과 단기 선교 간증 프로그램 <즐거운 교회>. <청춘 반짝반짝>은 성경과 교회 문화에 대한 총 20가지의 주제를 선정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알기 쉽게 소개한다. 매회 다른 주제와 구성으로 청소년들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여름 단기 선교 시즌에 맞춰 선보이는 <즐거운 선교>는 교회별, 성도별 단기 선교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소개해 타문화 선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7:0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07: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8: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이재훈 목사의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1:00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C> 11: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C> 10: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0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웨인 코데이로의 알로하 주님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거룩한 바보들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다큐] 최고의 선물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아교회)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인그램의 축복의 가정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컨퍼런스] 종교개혁: 믿음의 유산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4:50 나침반 바이블 16: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6:4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박재연의 육아맘을 위한 공감톡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교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라 21: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선택과 결정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핫볼트리니티 성경강좌 <성서와 지리>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라디컬 00:20 생명의 삶	19: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0:10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오직 믿음, 오직 기도> 21:0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온누리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주제강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맥스 루케이도의 믿음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19:00 온누리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주제강의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2: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팀 켈러의 사명과 축복 00:20 생명의 삶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규, 김 인, 김인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아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원,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상기, 정용주,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gi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

※ 기타 시청문의 02-796-9800

성경적 가치관 경영과 크리스천 임팩트

정진호 장로 (CGNTV 운영위원, 현 더웰스인베스트먼트 회장)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입니다. 최근 기업들마다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업이념 - '문화창조', '인간중시', '건강과 행복' 등의 슬로건들을 내걸고 '기업의 가치관 경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탐욕자본주의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목표가 단순히 '세계 초일류회사', '최고의 시장점유율' 등의 '주주 이익 극대화경영'으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유경제', '따뜻한 자본' 등 지역공동체와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가치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금융 전문 CEO로서 지난 37년간 국내외 기업들을 경영하면서 제 자신에게 늘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CEO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기업의 비전과 미션은 무엇일까?", "기업의 성경적인 투자원칙은?" 등 '성경적인 가치관 경영'에 준한 근본적 기업존재론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결론은 결국, "올바른 성경적 기업관을 확립하는 것이 기업의 'Sustainability(지속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하고 '크리스천 임팩트'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GNTV의 기업 슬로건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는 미디어 업계에서 참으로 신선한 크리스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30년을 향한 CGNTV의 도전과제는, 위대한 미션과 기업의 Sustainability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 전략'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10년 간 CGNTV의 "Faith Mission(믿음 선교)"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미래 30년의 '실행전략'도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비밀의 길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마음을 품고 걸어가면, 앞선 미래에도 또 다른 지혜가 생기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또 다른 실행전략,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119:18)

